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6월 9일(금)
---(음력 4월 21일)---
Пятница
9 июня 2023 г.
№ 22 (12039)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6월 12일은 러시아의 날이다.

(이예식 기자의 사진첩에서)

단신

"사할린-1" 프로젝트의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이 특별 군사 작전 이전 수준에 도달

"사할린-1" 프로젝트의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이 특별 군사 작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이를 통해 사할린 지역의 안정적인 고 지속 가능한 수익원이 보장되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는 사할린주 지방정부가 사할린주 두마에 제출한 2022년 지방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정보를 발표했다고 지방정부 공보실이 밝혔다.

"사할린-1" 프로젝트의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이 특별 군사 작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최근에 이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며, 예산을 늘릴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요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지사가 밝혔다. 이는 "사할린-3"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즈노-키린스코에 지역 개발을 위한 작업이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에 출시된다. 2024년에 개장하는 석유 및 가스 단지가 건설 중이다. 이미 12명 대표가 등록했다. 에너지 복합 프로젝트에 우리는 중국과 인도의 기업을 초청하고 있다. 이는 석유 및 가스 서비스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 기업이 비워둔 틈새 시장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2027년까지 사할린에 5개의 수산물 가공 공장 건설 예정

의회와 함께 2단계 투자 쿼터 시행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했다. 덕분에 사할린 어민들은 2027년까지 사할린 지역에 5개의 수산물 가공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지역 정부 보도부에서 전했다.

또한 6개의 어류 부화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기드로스트로이", "콘티넨트", "투나 이차", 유즈노쿠릴스키 생선 공장, 생선 공장 "오스트로프로노이" 등 대기업이 이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할린주와 바쉬키리아공화국, 기후 의제에 협력

"2030 우선순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6월 5일부터 9일까지 바쉬키리아 우뎀스크 주립 석유 기술 대학의 탄소제로 기술 센터 대표들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바쉬코르토스탄의 과학자들은 방문의 일환으로 사할린주 임업 및 수렵청, 사할린주 생태 및 지속 가능한 개발부, 사할린 기후 센터, 기술 석유 및 가스 연구소, 사할린 주립대학교 자연과학 및 기술 대기 안전 연구소 대표들과 실무 회의를 가졌다.

양측은 기후 프로젝트의 공동 이행, 생태계 수용력 평가 방법론 개발, 보호 지역 및 탄소 흡수원 개발 협력, 환경 안보 및 영토의 지속 가능한 개발, 기후 변화 및 기술 대기권 안전 분야의 교사와 학생을 위한 학술 교류 프로그램 등을 논의했다.

사할린주 기대 수명 1.5년 증가

2021년 사할린과 쿠릴 주민의 평균 수명은 69.7세였다. 2022년 총화에 의해 기대 수명이 71.2세로 늘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 지역 두마에 제출한 한 해 동안의 지방 정부 활동 보고서에서 의료 개혁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1년 반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는 기대 수명을 10년 더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의학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원과 첨단 장비가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종종 부족한 것은 적절한 조직과 사람에 대한 배려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가 강조했다.

알레리 리마렌코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무엇보다도 의사에게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할린 지역에서는 보건 시설에 통일된 시간표를 도입하고 각 전문의의 근무 시간을 통제하는 등 관리 시스템을 변경했다. 이러한 변화는 주지사 주도 프로젝트 "보살핌, 보호, 존중"의 중요한 구성 요소였다. 그 결과, 동일한 수의 의료 전문가가 사용 가능한 예약을 30% 늘렸다. 자리가 부족한 경우 대기자가 명단에 올라간다. 작년에는 10만 명의 환자가 진료를 예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물론 여전히 의료에 대한 문제들이 남

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주지사가 시작한 개혁의 실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1-300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전문의에게 진료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응급센터 덕분에 외딴 마을의 주민들도 통합 건강 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었습니다. 환자가 어디에 거주하든 새로운 기술 덕분에 지역 및 연방 클리닉의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 두마 의원인 나탈리아 코르슈노바가 말했다.

치과, 진단 및 방사선과 등 45개의 차량 의료 단지가 외딴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올해 혁신은 인력이 부족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동 의료팀이다. 이 작업 시스템은 이미 사할린 남부에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곧 이 주내 대부분의 지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섬에는 약 15만명의 만성 질환자가 거주 중이다. 각 개인에 대한 연간 개인 건강 후속 조치 계획이 작성되고 건강 가이드가 배정된다. 건강 관리자들에게 이런 명칭을 부여하였다. 그들은 환자에게 의사 진료나 검진을 예약해주고, 진료를 상기시켜주고, 정신적 지원을 제공한다. 가이드들 중 상당수는 심각한 질병을 겪은 경험이 있어 이러한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3면에 계속)

친애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러시아의 날을 맞아 진심으로 축하를 전합니다! 이 기념일은 조국에 대한 진실한 사랑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국민을 하나로 묶고 새로운 업적에 대한 힘을 줍니다.

수세기 동안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가진 우리 조상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적과 싸우고, 광활한 땅에 정착하고,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며 세계 강대국인 현대 러시아를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후손인 우리에게 조국에 대한 단결과 헌신으로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러시아의 운명에 대한 책임은 우리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사할린과 쿠릴주민들이 러시아의 독립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경제 분야에서 유망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사회 영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 군사 작전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애국심을 가지고 성실한 근무, 조국 수호를 위한 준비 태세에 감사를 전합니다. 건강, 행복, 번영을 기원합니다!

즐거운 기념일 되세요! 러시아의 날을 축하합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새고려신문

2023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 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06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6월 12일은 러시아의 날

러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 · 사할린 한인들은 우선 러시아인이다

6월 12일은 러시아의 날이다. 이 날을 앞두고 본사 배순신 기자는 극동·시베리아고려인단체 연합회 회장이자 하바롭스크변경 민족협회(아삼블레야) 제1부회장인 백규성(러어 이름 백 블라디미르 니콜라예비츠)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 회장님, 먼저 고려인 단체 연합회의 활동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단체가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고, 과거에도 저희 신문에 귀하의 단체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현재 활동과 주력 분야, 연합회가 어떤 단체와 협력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오늘날의 정세는 당연히 우리 연합회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 다민족의 정신적, 도덕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러시아 민족의 일부로서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대중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특별 군사 작전 참가자 및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다른 민족의 대표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고려인 및 사할린 한인들이 "갈색 전염병"의 새로운 침략으로부터 다민족 국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명 피해가 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

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기억과 다민족 국가의 과거의 영광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 약 5년전에 하바롭스크에 '아리랑'문화센터가 지어졌는데 백 회장님이 직접 투자하고 공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투자했다기보다는 가족 예산으로 건설했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문화센터에는 우리 단체 사무실 외에 하바롭스크한국교육원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합창단, 사할린한인이산가족협회, 청년회, 하바롭스크변경민족협회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3층의 센터(총 면적 1200 평방미터)에는 자주 다양한 민족 단체들의 여러 행사들이 펼쳐지는데 이때는 행사장을 무료로 제공해줍니다. 이 건물이 '문화센터'인 만큼 임대료를 내는 것보다 무료로 하는 행사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한국어와 한민족문화를 익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리랑" 민족문화센터를 처음 구상했을 때, 젊은 세대에게 애국심과 모국 사랑, 그리고 언제든 모국을 지킬 수 있는 태세를 교육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많은 하바롭스크 고려인들이 특별 군사 작전 초기부터 참가자와 가족들을 지원해왔으며, 연



백규성 회장 소개 1951년 사할린에서 태어나 포로나이스크시에서 학교를 졸업했다. 1972년 하바롭스크 철도 기술 대학교를 졸업한 후 극동 철도 구조에서 근무했다. 1993년에 극동 철도국 부국장직을 사임했다. 1981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국제 임무를 수행했으며 무공포장을 받았다. 2004년부터 극동시베리아고려인단체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현재 하바롭스크변경 민족협회 제1부회장이며 하바롭스크변경 사회원 부의장, 극동 국립 인문대학의 명예 교수로 있다. 결혼하여 자녀 2명과 손주 3명을 두고 있다.

합회의 크리에이티브 그룹에서 특별

군사 작전 참가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어느 하루 한국에 영주귀국하신 사할린출신 한인이 최전선에 개인적으로 물질적 지원을 제공했거든요. 이러한 과정에 젊은이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 제가 15여년전 처음 신문에 귀하의 단체를 소개했을 때, 세대 간 연속성에 주목하며 귀 단체가 매우 강력한 청년 운동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세대 간 연속성은 고려인, 한인 이든 아니든 러시아의 모든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일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이며, 광활한 다민족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의 청년회는 일상 업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 연합회는 하바롭스크변경 민족협회의 회원이며, 민족협회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인협회는 이 단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하바롭스크변경 민족협회는 하바롭스크 변경을 대표하는 우호적인 민족을 가족처럼 묶어주는 단체입니다. 우리 지역은 인종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극동 및 시베리아 고려인 단체 협회를 비롯한 여러 국가 협회의 노력 덕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와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만 국민의 평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회장님은 민족협회의 제1부회장으로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 중인데, 어떤 업무 분야를 직접 담당하고 계신가요?

- 개인적으로 특별히 담당하는 분야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민족협회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대가족입니다. 가족들은 모든 문제를 동등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죠. 우리 단체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고 어떤 것은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없지요.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문제라도 모두 중요한 법입니다.

- 러시아의 날을 앞두고 새고려신문 독자들에게 기원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지요?

- 첫째로 러시아의 날을 앞두고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평화로운 햇살이 비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러시아인으로 남아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모국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모 저 모

사할린, 전파 방해 면역 드론 "류틱" 개발

사할린 무인 기술 센터의 전문가들이 정찰 및 탄약 배달을 위한 최신 쿼드콥터 "류틱"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해당 단체에서 타스통신으로 제보하였다.

새로운 드론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전파방해 구역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어 특수 군사 작전에서의 효율성이 높다는 점이다.

중국산 드론은 통신과 위성이 끊기면 공중 정지 후 착륙하는 반면, 류틱은 바운스 메커니즘이 있어 임의의 방향으로 비행해 전파방해 구역을 벗어날 수 있다고 무인 기술 센터는 전했다.

이 쿼드콥터는 이미 특수 군사 작전 지역에서 테스트를 마쳤다. 최종 업그레이드된 드론은 탑재 하중과 비행 시간이 증가했다. "류틱"은 1시간 동안 공중에 머물 수 있고 최대 1.5kg의 짐을 운송할 수 있다.

사할린 무인 기술 센터는 무인 항공기를 생산 및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기도 하다. 해당 센터는 법 집행 기관 외에는 협력하지 않는다. 모든 작업은 자체 비용으로 수행된다.

На Сахалине создали устойчивый к радиоэлектронной борьбе дрон «Люттик»

Специалисты из Сахалинского центра беспилотных технологий представили новейший квадрокоптер «Люттик» для разведки и доставки боеприпасов. Об этом ТАСС сообщили в организации.

Одной из основных особенностей нового аппарата является его способность быстро покинуть зону работы средств радиоэлектронной борьбы (РЭБ), что повышает его эффективность 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В центре беспилотных технологий отметили, что китайские дроны при потере связи и спутников зависают и садятся, а «Люттик» обладает механизмом отскока и способен лететь в рандом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для выхода из зоны РЭБ.

Квадрокоптер уже прошел испытания в зоне СВО. Итоговая модернизированная версия дрона обладает увеличенной грузоподъемностью и временем полета.

«Люттик» может находиться в воздухе в течение часа и перевозить до 1,5 кг полезной нагрузки.

Отметим, Сахалинский центр беспилотных технологий занимается производством и разработкой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а также проводит обучение специалистов. Центр работает только с силовыми ведомствами. Все работы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за счет соб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 제26회 장애인 스파르타키아드에 약 150명이 참가

스파르타키아드 마지막 무대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스포츠 콤플렉스 "유니오르"에서 15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는 유즈노사할린스크 행정부의 언론부에서 보도했다.

알렉세이 보첸코 체육 스포츠부 국장과 엘비라 유르코와 사회정책부 국장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에게 연설을 통해 결승 무대에 오른 것을 축하하고 대회에서의 선전을 기원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정신신경 기숙학교와 유즈노사할린스크 노인 및 장애인 거주 주택의 병동뿐만 아니라 7개 지역사회 단체 대표들이 제26회 스파르타키아드에 참가했다. 한 주 동안 시민들은 수영, 사격, 체스, 드래프트, 탁구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경쟁했다. 스파르타키아드 마지막 날, 참가자들은 다트, 표적 사격, 전방 굽히기, 팔씨름에서 경쟁했다.

Около 150 человек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XXVI Спартакиаде для людей с ОВЗ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спортивном комплексе «Юниор»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рошел последний этап Спартакиады с участием примерно 150 человек.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Алексей Боженко и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соц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Эльвира Юркова выступили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к южносахалинцам, поздравив их с финальным этапом и пожелав успеха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х.

В XXVI Спартакиаде участво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ем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а также подопечны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психоневрологического интернат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дома-интерната для престарелых и инвалидов.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горожане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различных видах спорта, таких как плава-

ние, пулевая стрельба, шахматы, шашки и настольный теннис. В последний день Спартакиады участники боролись за первенство в дартсе, шутерах на меткость, наклонах вперед и армреслинге.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마약에 대항하는 군대"의 달 시작

유즈노사할린스크 수비대 군인들은 "마약에 대항하는 군대"라는 주제로 마약 방지 활동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군인이 비 의약품 소비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밀매를 방지하고 건강한 생활과 가족의 가치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동부 군사 지구 언론부에서 전했다.

캠페인 기간 동안 군부대 지휘부는 마약 진료소의 전문가와 함께 교육 세션을 진행하고 마약 불법 밀매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러시아 연방 법률의 요구 사항을 전달한다.

또한 마약 통제 부서 담당자가 부대 지휘관에게 약물 중독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인식하는 기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군대에 마약이 불법적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간 조정 조직도 진행된다.

좋은 전통에 의해 군 장병과 그 가족을 100% 포함할 목적으로 '최우수 그림', '최우수 시', '최우수 노래' 부문을 가지고 공모전을 개최하여 최우수 작품을 제출한자들에게는 군부대 지휘관이 상을 수여한다.

캠페인은 결과를 통합하여 가장 수준 높고 효과적인 활동을 조직하고 마약 밀매와 관련된 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군부대 지휘관에게 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Всеармейский месячник

«Армия против наркотиков» стартова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воинских частя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гарнизона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приступили к выполнению комплекса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наркомании «Армия против наркотиков». Целями акции являются профилактика и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немедицинского потребления и незаконного оборота наркотических и психотропных веществ личным составом, а так же пропаганда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и семейных ценностей,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Восточн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8면에 계속)

상트페테르부르크, 사할린동포문제 해결 방안 마련

2023년 6월 3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2회 «사할린 동포 문제: 해결 방안» 국제 실무학회가 개최되었다. 학술회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사할린한인회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이번 실무학회는 다각면에서 성공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할린주는 물론 그 외 모스크바시와 모스크바주, 상트-페테르부르크, 알타이와 중앙아시아, 이르쿠츠크주 또는 대한민국 등 여러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할린 한인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직접 방문을 못한 우리 동포들도 대회에 관심을 가져서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했다. 또한 한국에서 최경옥 교수, 박봉수 '디아스포라'연구소 소장이 참석해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영주귀국, 국적 취득에 관련된 문제를 잘 분석하였다.

둘째는, 실무학회와 학회에 앞서 이틀간의 토론 결과로 우리 동포들이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요청하는 공동 청원서를 작성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결과로 보인다.

현행법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사할린 한인들이 대한민국에 영주귀국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방법을 마련했다. 이 법 시행으로 수많은 사할린 동포들이 모국에 귀국하게 되었다.

현행법 링크는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605&lsiSeq=248489#0000> 로, 이곳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5년 동안 현행법 시행 과정을 살펴보면 여전히 많은 동포들이 모국 귀국을 신청할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다. 따라서 현행법에서 부정적 조건을 제외해야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번 학회는 현행 특별법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정사항을 작성하였는데, 밝혀진 문제가 해결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공동 청원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사할린동포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하였다가 1945년 08월 15일 조국이 해방되었음에도 정치적 이유 등으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한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로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사할



린동포의 범위를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하였다가 1945년 08월 15일 조국이 해방되었음에도 정치적 이유 등으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한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로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영주귀국을 하지 못하고 러시아연방이나 CIS국가 등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사할린동포들도 영주귀국하는 동포와 같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고, 영주귀국하지 않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은 영주귀국자로 한정하지 말고, 현지에서 생활하는 사할린동포들에게도 영주귀국자와 동일한 정도의 합당한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할린동포들은 오랫동안 대한민국과 체제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생활하여 왔기 때문에 영주귀국을 하더라도 정착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영주귀국하지 않고 국외에 계속 체류하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고국과 점점 더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사할린동포들이 민족의 동질성을 잃지 않고,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대별, 연령별, 수준별로 충분한 교육기회를 갖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적법 관련 사할린동포들이 불편함이 없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각종 요건, 구비서류 등과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사할린동포들의 경우 보다 간편하게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관련 사할린 동포들이나 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은 여건이 성숙되면 영주귀국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영주귀국을 준비하는 사람도 적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준비를 위하여 간편하게 출입국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회에서 사할린 한인들은 전반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사할린 한인 문제 해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상임 위원회를 결성했다. 이와 같은 노력이 큰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지역간 사할린한인협회(모스크바)의 임원인 박 알렉산드르 변호사)

사할린주 기대 수명 1.5년 증가

(1면의 계속)

"건강 관리자는 의학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 질병과 관련한 지식이 있는 일반인들이다. 그들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가장 자주 발생하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이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이웃의 입장에서 환자들이 제때 검사를 받고 약국에서싼 값에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가이드는 또한 환자가 보건소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고 예약을 통해 클리닉에 와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의료와 조직이 효과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저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우리 의학에서 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블라디미르 로즈메이코 주 두마 의원이 말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지역 내 15개의 첨단 진단 센터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 2021년에는 73,000명의 사할린과 쿠릴 주민이, 2022년에는 90,000명 이상이 검진을 받았다. 올해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15만 명을 대상으로 종합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진을

통해 종양,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위험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환자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알레리 리마렌코는 매우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할린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 작업과 시스템적인 의료 서비스 실패를 모두 고쳐 나갈 수 있다. 특정 상황에 대처할 때 주지사는 보건부 장관과 함께 모든 사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작년에 주지사는 약 500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저소득층 가정도 대면 회의에 참여했다. 주 당국은 이들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취업, 재교육 또는 창업을 돕는다. 필요한 경우 주택, 의료, 자녀들이 집 근처에 있는 유치원 또는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문제들을 해결한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약 6,000가구(사할린 및 쿠릴 주민 18,000명)의 소득이 1년 동안 증가했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올해 이미 약 3,000가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가 말했다.

'재외동포청' 출범

6월 5일 오전 인천 송도 부영송도타워 내 재외동포청사서 출범식

윤 대통령,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

"재외동포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모국과 교류·협력 촉진하는 연결고리 역할 수행할 것"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집행하는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 출범식이 6월 5일 오전 인천 송도 부영송도타워 내 위치한 재외동포청사에서 열렸다.

이번 출범식은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재외동포청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고 재외동포청이 750만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태호 국회 외교 통일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정관계 주요 인사,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에 소재한 동포단체 인사를 포함해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프라이스' 작전을 통해 귀국한 수단 한글학교 교사, 고려인과 사할린동포, 우크라이나 동포 등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또한 아시아,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각지의 한인회장을 포함해 거주국 주류사회에 진출한 전문직 종사자,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동포 등 600여명의 재외동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참석해 재외동포청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출범식은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재외동포청 신설 경과보고(박진 외교부 장관) ▲재외동포청장 임명장 수여 ▲재외동포 포상 ▲대통령 기념사 ▲재외동포청 헌관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다"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인천은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라며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며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라며 "앞으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 자리 잡으신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해외 네트워크"라며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돼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 동포들을 만난 것을 언급하며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폭당한 지 78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분들이 고통과 슬픔을 겪는 현장을 고국이 함께 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를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모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재외동포청이 수행해야 할 필수적인 임무"라고 말하고 "2세, 3세 동포들에게도 모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국인의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을 방문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온 재일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동포,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독 광부·간호사 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고, 다문화 가정 동포, 해외 입양 동포, 또 국내 체류 동포와 같이 전담 기구의 부재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동포들도 적극적으로 포용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께서도 세계 곳곳에서 소중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외동포청은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란 말로 기념사를 맺었다.

윤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재외동포청 헌관을 전달했다. 또한 그간 동포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87명의 재외동포 유공자 중에서 송창근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회장(무궁화장), 이옥화 前아세안태평양양자문위원회 커미셔너(동백장), 구상수 재인도한인회 고문(석류장), 김희경 필리핀한국여성연합회 이사(대통령표창) 등 4명에게 직접 훈장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출범식 후에는 송도 센트럴파크 UN공원에서 재외동포청 개청 축하행사가 이어졌다. 이 행사에는 정관계 주요인사, 유제현 유럽한인총연합회장, 윤희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장, 김병직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 등 주요 한인단체장 그리고 재외동포청 유치에 함께 힘을 모은 재외동포와 인천시민 등 700여명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인천은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과 글로벌 기업, 15개의 국제기구와 글로벌 교육기관을 품고 있는 도시"라며, "재외동포의 네트워크 허브가 될 재외동포청은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750만 동포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둔다는 것은 인천이 곧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인천은 1950년 공산 침략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상태에 놓였을 때 전환을 일거에 반전시킨 상륙작전이 전개된 곳"이라며 "인천이 자유와 혁신의 정신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것은 어찌보면 역사적 필연"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대북을 두드려 재외동포청 개청을 알리고 재외동포청의 발전과 성공을 기원했다.

(재외동포신문)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Диалог Россия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 онлайн-формате состоялось очередное заседание Дискуссионного Клуба Форума «Диалог Россия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Участников мероприятия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руководитель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ДРПК «Политик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профессор СПбГУ Константин Худoley и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Ханян Ом Кухо.

«Сегодня в рамках встречи мы обсудим новую концепцию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Ф, котора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ходится в позиции конфронтации между РФ и Западом. Вы можете наблюдать эволюцию наших доктрин. Если доктрины 90-х и начала 2000-х были более ориентированы на кооперацию с Западом, то шаг за шагом ситуация менялась. 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мы имеем реальную конфронтацию. Конечно, эта стратегия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лет под воздействием различных условий будет изменяться. Сегодня мы поделимся мнениями, новостями и идеями новой концепци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Ф», — профессор СПбГУ Константин Худoley

«Очень рад снова видеть уважаемых коллег из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на очередном, четвертом по счету заседании Дискуссионного Клуба „Диалог Россия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Эти заседания всегда проходят в формате продуктивного диалога и являются уникальн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обмена мнениями и научными знаниями о самых актуальных событиях в сфер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 профессор Ом Кухо.

С докладом «Россия: путь к «мировому большинству» выступи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Российского совета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Иван Тимофеев. По мнению автора, в российском сообществе международников звучали идеи о развитии связей с западным миром задолго до того, как отношения России и Запада погрузились в политический кризис. Текущий кризис отношений России и Запада, судя по всему, носит необратимый характер, а наращивание количества и качества связей с западным миром становится попросту безальтернативным. Вместе с тем, на пути к «мировому большинству» России ждёт целый ряд сложностей и препятствий, а развитие отношений России с западным миром, скорее всего, будет идти с учётом нескольких взаимосвязанных задач. Первая задача — формирование относительно независимых от США и их союзников центров силы, обладающих высок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субъектностью. Пода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го бунта» для Запада является вопросом принципиальным. Вторая задача — создание надёж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модернизации через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западным миром. Успех здесь далеко не очевиден. Третья задача — обеспеч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запад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Конфликт с Западом резко снизил безопасность России.

«России будет трудно сделать выбор между Западом и западом просто потому, что такой выбор на практике невозможен. Скорее России придётся вернуться к исторически присущей ей эмпатии в диалоге в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самыми разными культурами и укладами. Возможно, нам придётся больше слушать, чем говорить, больше учиться, нежели учить, накапливать, а не тратить. Нас ждёт время терпения, выдержки, а подчас и смирения с трудностями, без которых сложно будет пережить нов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момент», — заключил Иван Тимофеев.

С докладом от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выступил профессор же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Токсан Ким Сонжжин. В исследовании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2023 года: сравнение» он подробно рассмотрел вопросы восприятия мирового порядка, приоритетов, в том

числе региональных, восприятия России и отношений с Западом, США, Китаем.

«Человечество сейчас переживает революционные изменения. Идет формирование более справедливого многополярного мироустройства. Укрепляются суверенитет и конкурент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незападных мировых держав и стран-лидеров региона. Структурн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ее перевод на новую технологическую базу, рос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амосознания, культурно-цивилизационного разнообразия и другие объективные факторы ускоряют процесс смещения потенциала развития в новые центр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и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лияния и способствуют демократизац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 профессор Ким Сонжжин.

По его мнению, Россия не считает себя врагом Запада, не изолирует себя от Запада и не имеет по отношению к нему враждебных намерений. Россия надеется, что в будущем государства, принадлежащие к западному сообществу, осознают бесперспективность их политики конфронтации и гегемонистских амбиций, будут учитывать сложные реалии многополярного мира и возобновят прагматич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Россией, руководствуясь принципами суверенного равноправия и уважения интересов друг друга.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готова к диалогу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на такой основе.

Говоря о новой концепци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профессор СПбГУ Станислав Ткаченко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государства хотят сохранить свою идентичность и независимость, основываясь на историческом наследии и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ах. «Россия уважает стремление стран к проведению независимой политики, в будущем именно цивилизационные страны могут стать гарантами в построении новой мировой архитектуры безопасности», — считает профессор.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Кунмин Чан Токчун в своем докладе отметил, что западные страны стали активнее выступать в качестве центрального игрока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А страны так называемого глобального Юга намеренно приуменьшают значение Запада, включая США, которые, в свою очередь, вместе с коллективным Западом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вызов движению к многократному умножению авторитета России. Пока возобнови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не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возможным.

В дискуссии такж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заведующий кафедрой теории и истор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Россий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 Патриса Лумумбы Денис Дегтярев, член научного совета при Совете Безопасности РФ;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Центра коре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нститута Китая и современной Азии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Александра Зуева, руководитель Центра североамерикан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мени Е. М. Примакова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Виктория Журавлева, заведующий кафедрой корееведения,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ергей Курбанов. С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в дискусс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офессор Ко Чжэнам (директор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евразийской политики, почетный профессор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академии), Хён Сынсу,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Институт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и Чан Кихо, менеджер Отдел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вязей Корейского Фонда.

ИА РУСКОР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СПбГУ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роблем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ерспективы решения»

03 июня 2023г. в г.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прошл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роблем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ерспективы решения». Инициатором и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онференции выступил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АХКОР». Напомним, что первую конференцию на эту же тему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овели 01 октября 2022г.



Нынешнюю конференцию во всех отношениях можно считать успешной. Во-первых, удалось собрать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как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 и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г. Москве и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г.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г. Алматы и странах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 Иркутской области и, конечно,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к обсуждению повестки конференции проявили и те наши земляки, кто не смог приехать лично. Для них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трансляция в zoom.

Во-вторых, работа конференции 03 июня 2023г., а также предшествовавшее ей двухдневное обсуждение насущных проблем в формате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принесли значимый результат — по итогам работы конференции составлено совместное обращение к Правительству и Парламент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конкретными предложениями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Спец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ак известно этот закон действует с 01.01.2021г. и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мер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переезжающим в Корею на ПМЖ. Благодаря ему сотн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могли переехать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Ознакомиться с текстом закона можно здесь: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605&lsiSeq=248489#0000>

Однако, применение закона за прошедший период (2,5 года) показало, что по действующей редакции закона многие наш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лишены возможности переселения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И крайне необходимо исключить из закона несправедливые ограничения.

Участники конференции выработали конкрет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по изменению действующего Спецзакона, с тем, чтобы решить выявившиеся в ходе его реализации проблемы.

В совместном заявлении предлагается:

1. Включить в круг лиц для участия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е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дину супруга (супругу) скончавшегося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а также их прямых потомков с супругом (супругой) и их потомками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нового разделения семей).

2. Исключить из закона (пункт 2 статьи 2) ограничение числа потомков (в наст. время — 1 чел.).

3. Обеспечить выплату компенсаций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1-го поколения, пожелавшим остаться на о. Сахалин и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без выезда на ПМЖ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4. Дифференцировать меры и объемы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озраста (поколения) участников программы. Вносится предложение о том, что меры и объемы поддержки в отношении сопровождающего лица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на лиц 2-го поколения. Всем же лицам 3-го и последующих поколений меры поддержки целесообразно проводить в рамка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и адаптационных программ.

5. Предоставить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право 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и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ез отказа от гражданства РФ (второе гражданство) на основании одного факта — родители были мобилизованы на Сахалин из Кореи в годы аннексии Японией.

6. Упростить процедуру получения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и их потомками гражданства Кореи, въездной визы (F4), вида на жительство (F5).

Участники конференции решили объединить усилия и создать Координационный комитет по решению пробле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задачей которого будет скорейшее улучшение Спец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основе предложений конференции и продвижение этой инициативы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Хочется пожелать успехов в этом важном начинании.

С видом на Кремль

Москва, 7 июня — ИА РУСКОР

Памятный подарок — офорт с видом Кремля вручили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бывшему послу Южной Кореи в России, а ныне Первому заместителю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Чан Хо Чжину на встрече с ним 6 июня во время его краткого визита в Москву.

На встрече вместе с президентом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членом Совета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отношениям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Ф Василием Цо, заслуженным учителем России Нелли Эм, бы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Состоялся обмен мнениями по акту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й дипломат ответил на вопросы,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идит свою задачу в усилиях по нормализации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особенно в возвращени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Росс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на прежний уровень.

Пилоты Asiana Airlines требуют повышения зарплаты

7 июня профсоюз пилотов компании Asiana Airlines объявил о начале забастовки без прекращения работы. Теперь предполётный инструктаж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в положенное по регламенту время — за 80 минут до вылета, а не за два часа как раньше. Пилоты будут соблюдать положенную законом скорость движения на взлё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е, а после подъёма самолёта в воздух сохранять минимально разрешённую скорость полёта в пределах установленных высот. В связи с этим ожидается задержка вылета самолётов авиакомпании Asiana Airlines на внутренн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линиях как минимум на 30 минут. Поводом для забастовки послужил размер повышения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пилотов на 2,5%. По мнению профсоюза, это маленькая сумма с учётом того, что другие авиакомпании, в том числе Jeju Air и T'way Air повысили оплату труда своих пилотов более чем на 10%.

KBS World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РК стала непостоянным членом СБ ООН на 2024–2025 годы

6 июня РК избрана непостоянным членом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на 2024-2025 годы. РК, которая была единственным кандидатом от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поддержали 180 из 192 стран, принимавших участие в голосовании. Это значительно больше минимальных 2/3 голосов, требуемых для включения страны в число непостоянных членов. Выступая перед журналистами после голосования, постоян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РК при ООН Хван Чжун Гук обещал сделать всё возможно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миру, свободе и процветанию во всем мире посредством дипломатии, основанной на общечеловеческих ценностях, принципах Устава ООН и путём расшир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азвивающимися странами. В заявлен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едомства говорится, что РК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усилиям ООН по устранению угрозы, создаваемой ракетными и ядерными разработкам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ддержанию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РК стала непостоянным членом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в третий раз. Она имела данный статус в 1996-1997 и 2013–2014 годах. В состав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входят пять постоянных членов, обладающих правом вето - США,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Франция, Китай и Россия, а также десять непостоянных членов, избираемых на два года по региональным квотам. Помимо РК, в их число были избраны Алжир, Сьерра-Леоне, Гайана и Словения. Эти пять стран займут места Албании, Бразилии, Габона, Ганы и Объединённых Арабских Эмиратов, срок полномочий которых завершится в январе 2024 года. Непостоянными членами останутся также Индия, Ирландия, Кения, Мексика и Норвегия.

Ким Ё Чжон: Пхеньян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 запуски спутников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как суверен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 осуществлять «все свои законные права», в том числе, право запускать спутники. Как сообщило 4 июня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об этом заяв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заведующего отделом пропаганды и агитац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Ким Ё Чжон. Она назвала состоявшееся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заседание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на котором обсуждался неудачный запуск ракеты со спутником, «несправедливым и предвзятым актом вмешательства во внутренние дела КНДР по требованию США». На орбите Земли находятся больше пяти тысяч спутников различного предназначения, но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обсуждает только запуск спутника КНДР. Подобные действия следует рассматривать как «преднамеренное нарушение подлинной миссии организации», - подчеркнула Ким Ё Чжон.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обозреватель Ким Мён Чхоль подверг критике принят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мор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ИМО) резолюции, осуждающей запуски ракет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В интервью агентству ЦТАК он заявил, что принятая резолюция будет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Пхеньяном как освобождение о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уведомлять ИМО о запусках ракет.

Баритон Ким Тхэ Хан получил первый приз конкурса королевы Елизаветы

22-летни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баритон Ким Тхэ Хан удостоен первого приз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королевы Елизаветы, завершившегося 3 июня в Брюсселе. В финале конкурса он исполнил пять произведений, в том числе, арию из оперы Рихарда Вагнера «Тангейзер». Ким Тхэ Хан стал третьим южнокорейским певцом, получившим главный приз данного конкурса, после сопрано Хон Хе Ран в 2011 году и сопрано Хван Су Ми в 2014 году. Конкурс королевы Елизаветы, который учредила бельгийская королевская семья, проводится с 1937 года. Он входит в тройку наиболее престижных конкурсов классических музыкантов, наряду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конкурсом пианистов имени Шопен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м конкурсом имени Чайковског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онкурс королевы Елизаветы проводился среди виолончелистов, и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нял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виолончелистка Чхве Ха Ён.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пропали дво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6 июня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об исчезновении жены и сына сотрудника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КНДР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Чхве Ён Нама. По данным ряда российских СМИ, 4 июня 43-летняя Ким Гым Сун и 15-летний Пак Квон Чжу сели в такси у здания консульства и направились в северную часть города, где пересели в другой автомобиль и уехали в направлении Хабаровска. Они вышли из здания консульства с тремя коробками, куда,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могли сложить личные вещи. Чхве Ён Нам подал заявление в полицию о пропаже семьи. Оперативники нашли таксиста, который вёз семью дипломата. Он рассказал, что высадил пассажиров на улице Русской, его слова подтвердили записи с камер наблюдения. Российские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е органы рассматривают данный инцидент как возможную попытку покинуть территорию России с целью выезда в третью страну.

(RKI)

В Инчхоне открылся Департамент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Президент Юн Сок Ёль пообещал проведение активной политики по улучшению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корейцами за рубежом во время открытия нового агентства 5 июня, которое будет заниматься вопросам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Юн сказал, что новое учреждение будет не только защищать и поддерживать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но и служить мостом, способствующим обмену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 Кореей.

Говоря об зарубежном контингенте как о ценной «офшорной сети» страны, Юн сказал, что тесная связь между 7,5 миллионами корейцев за рубежом, позволяющая им обмениваться информацией и опытом, приведет к совместному росту и развитию как их самих, так и их родины.

Президент пообещал, что Департамент будет более тщательно заботиться о них, подчеркнув, что «принятие их боли»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а.

Он также упомянул о поддержке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

цев из Средней Азии, Казахстана, России и Японии, а также усыновлённых и тех, кто живет в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ьях.

Президент сказал, что новое агентство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ять разнообразные программы по об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2-го и 3-го поколений и «пригласит» их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Тем временем, Инчхон запускает проект "Город 10 миллионов", где под 10 млн подразумеваются 3 млн жителей Инчхона и 7,5 млн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В его рамках будет создан «Welcome Center», комплексное учреждение поддержки обслуживания для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а вслед за Songdo American Town будут создан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жилые комплексы для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ся создать бизнес-центр, который будет поддерживать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и туристические программы для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и окажет им индивиду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в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Вся Корея».

Сеул отрицает отправку оружия в Украину

Сеул, 6 июня – ИА РУСКОР

Министерство национальной обороны Южной Кореи опровергло утверждения о том, что оно обсуждало отправку боеприпасов в Украину с Европейским союзом (ЕС) на фоне продолжающихся спекуляций о том,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продолжает оказывать Киеву косвенную военную помощь.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Южной Кореи Ли Чон Суп встретился с Джозефом Борреллем, верховны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ЕС по иностранным делам и политике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субботу в кулуарах диалога «Шангри-Ла» в Сингапуре.

В твиттере после встречи Боррелл написал: «Хорошая встреча с министром обороны Южной Кореи Ли Чон Супом на #SLD23. Поделились тревогой по поводу продолжающихся провокаций КНДР и обсудили потребности Украины в боеприпасах».

Однако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отклонило заявления о том, что Ли и Боррелл обсуждали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Киеву боеприпасов.

«ЕС упомянул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различных систем вооружения и другой поддержки, чтобы улучшить ситуацию Украины против России, и были односторонние замечания со стороны ЕС о важности боеприпасов», — говорится в текстовом сообщен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правленном журналистам в воскресенье.

В РК пересмотрена стратег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7 июн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едставило новую стратегию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на содержит ряд изменений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ей стратегией, принятой в 2018 году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тогдашнего президента Мун Чжэ Ина. Если в предыдущей стратегии приоритетом было мирное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то в обновлённом документе говорится о намерении Сеула укреплять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й альянс и расширя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области безопасности между Сеулом, Вашингтоном и Токио, одновременно стремясь к нормализации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качестве основной угрозы, стоящей перед РК, названо ядерное и ракетное оружи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этой связ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будут стремиться к укреплению способности активно реагировать на угрозы Севера. В новом документе не упоминаются «декларация об окончании войны» и «мирный договор», которые предыдущ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определяла как важные шаги на пути к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Севера. Вместо этого подчёркивается, что «смелая инициатива» п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Севера, о которой нынешни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резидент упоминал в август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остаётся в силе как способ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Другим заметным расхождением со стратегией предыдущ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является подход к отношениям с Токи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ратегие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н Сок Ёля, РК будет расширя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Японией по региональным и глоб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разделяя универсальные ценности. Из документа удалено замечание о том, что РК «будет решительно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искажения истории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и неправомерные претензии на острова Токто в Восточном море».

KBS World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патриотов и ветеранов приступило к работе

5 июня приступило к работе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патриотов и ветеранов. Повышение статуса управления до полноцен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было среди 110 политических задач, которые поставила перед собой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н Сок Ёля. Выступая на церемонии начала работы, министр Пак Мин Сик пообещал направить усилия на то, чтобы национальные герои были окружены вниманием и заботой. Уважение к ветеранам должно стать одной из основных ценностей на пути к будущему, - добавил он. В нов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будут работать 337 человек.

KBS World

Том Круз посетит РК в рамках продвижения нового фильма

Американский актёр Том Круз посетит РК в рамках продвижения своего нового фильма «Миссия невыполнима: Смертельная расплата. Часть 1». Как сообщил южнокорейский дистрибьютор Lotte Entertainment, даты и подробный график визита пока не определены. Между тем, визит возможен накануне или сразу после выхода фильма в РК, который назначен на 12 июля. Это будет 11-й визит Тома Круза в РК. Впервые он побывал в стране в 1994 году, когда представил фильм «Интервью с вампиром». Новый фильм, который снял Кристофер Маккуорри, является седьмой частью знаменитой серии шпионских боевиков «Миссия невыполнима» с Томом Крузом в главной роли.

KBS World

Определены победител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за объект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Более 54 тысяч человек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III онлайн-голосовании по выбору территорий и дизайн-проекто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амыми активными в этом году стали жители Анивского, Невельского и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их поощрить и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дополнительно создать еще по одному объекту.

– В этом году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приняли самое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голосовании за объект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Люди видят отдачу от проекта и следят за преображением своих городов и сёл. У многих уже есть предложения по объектам, которые можно включить на следующее голосование, – подчеркнул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 Также очень порадовали островные подростки. Они сами инициировали в своих классах голосование, приглашали волонтеров. Приятно видеть их энтузиазм в деле преображения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В частности, по итогам голосования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 Анивском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благоустроят обществен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у детского сада «Сказка» в районе и по улице Советской в Троицком,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 сквер в селе Рошино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о следам боевой славы») и парк «Мир» в Смирных. В Невельске обновленный вид приобретут два сквера – памяти погибшим воинам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II этап), а также имени адмирала Г. И. Невельского.

В Томари предстоит провести комплексное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набережной, а в Холмске – обустроить лестницу по улице Крузенштерна.

Обществен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преобразятся и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Продолжитс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парка Победы в Южно-Курильске (II этап) и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IV этап). В селе Рейдово Курильского района появится сквер рыбак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з трех объектов горожане выбрали сквер «Защитников отечества» (территория, расположенная северо-западнее пересечения ул. Горького и ул. Пограничная).

Большую работу в ходе организации голосования провели волонтеры.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участникам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волонтерского штаба стали 315 человек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до 73 лет. Жителей информировали о работе онлайн-платформы, разъясняли процедуру голосования, помогали отдать свой голос за тот или иной дизайн-проект в родном районе.

–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волонтерского корпуса были архитекторы, урбанист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творческих профессий, студенты и школьники, которые, в том числе,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 обсуждении дизайн-проектов, отобранных на общественное голосование. Волонтеры – это не обязательно молодёжь! К движению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целые семьи, люд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Всего о проекте было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но более 30 тысяч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Можно с уверенностью сказать, что волонтеры внесли существенный вклад в его реализацию, – отмет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ё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Смекалов.

Основная задача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нацпроекта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Указу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 преобразить российские города, поселки, сделать их комфортнее для людей, дать новый импульс развитию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на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нашей страны.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общественные территории, парки, скверы, обществен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Напомним, голосование проходило в период с 15 апреля по 31 мая на едином портале <https://65.gorodsreda.ru/>. На выбор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был предложен 41 объект по вс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каждом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определено в среднем по две – три территории.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в текущем году новый облик должны были получить 20 объект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Однако благодаря финансированию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программу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удалось расширить до 25 объектов.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общественные территории преобразят в ходе реализации областной программы. Полный список размещен на сайт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ЖКХ в разделе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Новый корпус травматологиче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открыл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здании, оборудованном самыми современными медицинскими аппаратами, пациенты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полный цикл – от первичного обращения к специалисту до процесса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месте с «серебряными» волонтерами осмотрел новые кабинеты и пообщался с врачами и пациентами.

– Травма – это всегда боль и физические ограничения. И очень важно, чтобы у таких пациентов была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быстро и

в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ях. Здесь для этого созданы все условия. У опыт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сегда под рукой самое совреме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Мы уделяем медицине особенное внимание, чтобы все нуждающиеся получили качественную помощь,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ликлиническое отделение травматологии разместилось на двух этажах нового здания. В отличие от прежнего строения, в котором не было технической возможности разместить лифт, здесь подъемное устройство имеется, что очень важно для пациентов с травмами опорно-двигательного аппарата.

– Техническая оснащенность здесь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Полный комплекс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Есть специальные аппараты,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восстановить функцию поврежденных суставов, современные аппараты для физиотерапии. Все это позволяет провести комплексное лечение от первичного приема до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ого процесса,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главный внештатный травматолог-ортопед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ур И.

К услугам пациентов лечебная физкультура, массаж, медицинская реабилитация, лечение при дневном стационаре. Весь процесс проходит под наблюдением специалистов, штат которых насчитывает: 10 врачей травматологов-ортопедов, физиотерапевта, массажиста, инструктора ЛФК, 6 рентген-лаборантов, рентгенолога и 12 медсестер.

– С утра сегодня приняли уже 8 человек. Снимки делаем, пациент приходит к врачу, специалист уже видит у себя в компьютере изображение. И вообще их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в любой поликлинике, в цифровом архиве, – рассказала рентген-лаборант Наталья Середина.

– Я выписалась из городской больницы после операции, сейчас прохожу реабилитацию. Сегодня только зашла сюда, была очень приятно удивлена. Красиво, просторно, удобно и уютно. Очень хочется, чтобы и дальше медицина у нас развивалась и врачей хватало, – поделилась одна из пациенток.

Новый корпус расположен рядом с прежним, по адресу пр. Мира, 56 а-1. Отметим, в прежнем корпусе продолжится оказание экстренной помощи пациентам. А запись на прием на плановое лечение ведется как по линии 1-300, так и через портал «Госуслуги» и инфомат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1,5 года выросла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жизни

В 2021 году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жили в среднем 69,7 лет. По итогам 2022 года,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жизни увеличилась до 71,2 года. Результаты медицинской реформы представ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своем отчете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за год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е.

– Полтора года – это немало, когда речь идет о жизни человека. Но этого недостаточно. Мы стремимся получить результат плюс 10 лет,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Для этого мы реформируем нашу медицину. У нас есть все ресурсы, есть перед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Но зачастую не хватает прави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работы и внимательного отношения к людям. Эти задачи мы решаем и продолжим решать.

По словам главы региона, доступность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 эт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озможность быстро попасть на прием к врачу.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изменили систему управления – ввели единое расписание для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и взяли под контроль рабочее время каждого специалиста. Эти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стали значим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губернаторского проекта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В результате, количество свободных талонов увеличилось на 30% при прежнем количестве специалистов, работающих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Если свободных ячеек для записи нет, человека ставят в лист ожидания. С его помощью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и дополнительно записаны на прием около 100 тысяч пациентов.

– Конечно, вопросы к нашей медицине еще остаются. Но сегодня мы видим реальные результаты реформы, которую нач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1-300 работает. Люди с хрон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сразу взять талоны к узким специалистам. Жителей отдаленных сел благодаря «умным» ФАПам включили в единую медицинскую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систему. Неважно, где живет пациент, благодаря новым технологиям он может проконсультироваться со специалистами областных и федеральных клиник,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депутат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Наталья Коршунова.

В отдаленных районах работают 45 автомобиль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их, диагностических и рентгенологических. Новация этого года – мобиль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бригады, которые выезжают в районы, где есть кадровый голод. Такая система работы уже начала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и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охватит большинство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 пациентам с хрон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Таких на островах – около 150 тысяч. Для каждого составляется годовой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лан диспансерного наблюдения и закрепляется проводник здоровья. Так называют администраторов диспансерного наблюдения. Они записывают пациентов на прием к врачу или на обследование, напоминают о дате посещения медицинского учреждения, оказывают мор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Многие из администраторов сами перенесли тяжелые заболевания и понимают, как важна такая работа.

– Проводники здоровья – это обычные люди, которые чаще всего не имеют к медицине никакого отношения, но возможно имеют отношение к той или иной болезни. Они прошли этот путь и знают трудности, которые на нем чаще всего возникают. Теперь они помогают другим и по-соседски следят, чтобы пациент вовремя сдал анализы, получил в аптеке льготные лекарства. Проводники следят и за комфортом пациента, чтобы он не стоял в очереди в поликлинике, а пришел по записи и получил необходимую помощь.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думал эффективный симбиоз – врачеб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й. Уверен, такой подход даст серьезный результат в нашей медицине, – отметил депутат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Владимир Розумей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ают работать 15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центров диагностики. В 2021 году углублен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прошли 73 тысяч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2022-ом – более 90 тысяч.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комплексно обследовать 150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Благодаря выявлению на ранних стадиях опасных недугов, в том числе новообразований, сахарного диабета,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ых нарушений, удается продлить жизнь пациентам.

Каждую неделю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одит личные приемы сахалинцев, которые не получают должную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Это позволяет как решать частные задачи, так и исправлять системные ошибк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азбирая одну конкретную ситуацию, губернатор вместе с министр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ринимают решения, касающиеся всех подобных случае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глава региона провел около 500 таких встреч.

Участниками личных приемов становятся также семьи с низкими доходами. Чтобы помочь им улучшить матери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помогают в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переобучении или открытии своего дела. Если требуется, решает вопросы с жильем, оказанием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устройством детей в детский сад или школу рядом с домом. Благодаря адресной работе с малоимущими за год повысили доходы порядка 6 тысяч семей – это 18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Конечно, мы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эту работу. В этом году в программу уже включены около 3 тысяч семей. Все, кому необходима поддержка, ее получают,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зобновил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олеты

После трехлетнего перерыва возобновилось прямое сообщение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Китаем. 6 июня первые 65 пассажиров вылетели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Харбин рейсом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которые будут выполняться каждый вторник.

–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о знаковое событие. Это открытие наших границ дл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дружественным Китаем. Помимо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это позволит расшири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Безусловно, прямое регулярное авиасообщение дае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которые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максимально эффективно,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Олонцев.

Рейсы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Харбин выполняются на воздушном судне DHC-8 Q400 по вторникам. Вылет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09:00, прибытие в Харбин в 08:55. Время в полете составляет 3 часа. Вылет из Харбина – в 10:05, прибыти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в 15:40. Билеты на первый рейс в Китай были выкуплены очень быстро, уже фиксируется высокий спрос и на следующие рейсы.

– Новый рейс дает большие преимущества для транзитных пассажиров, которые отправляются в другие страны. Рейс уже пользуется большим спросом, если возникн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авиакомпания изыщет возможности и поставит самолет большей вместимости на этот маршрут,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Спиченко.

В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отметили, что рейсы в Харбин выполняются также из Хабаровска и Владивосток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все три базовых аэропорта «Авроры» связаны регулярным авиасообщением с Харбином, и это добавляе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гибкости в планировании маршрута поездок дл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Прямые рейсы в Харбин позволят жителя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не только совершить беспересадочный перелет, но и предоставят пассажирам широкий выбор удобных стыковок в города Китая, а также в Южную Корею, Японию и другие страны. Для транзитных пассажиров действует безвизовый режим в течение 24/72 часов, что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совершить прогулку в Харбине и продолжить свое путешествие.

Подробнее узнать о расписании полетов и приобрести авиабилеты можно на сайте «Авроры» www.flyavroga.ru, а также в агентствах. Справки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в контакт-центре авиакомпании по многоканальному телефону 8-800-250-49-88. Звонки из всех городов и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бесплатны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5억 넘는 해외계좌, 6월 안에 신고해야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 현금·주식·코인 등 합산액이 하루라도 5억 넘었다면 신고 대상

올해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 해외 금융계좌에 포함된다. 해외 가상자산계좌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한다.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 주식 채권 등 다른 금융자산과 합산해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된다.

지난 2020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됐다. 따라서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뿐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에 개설한 디지털 지갑도 포함됐다.

2022년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출고한 금액은 19조 9,000억 원으로, 전체 출고금액에 대비 65%에 달한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보낸 자산 규모가 20조 원에 육박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해외 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보유 신고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시행되는 만큼 신고제도를 안내하는 등 신고 지원 서비스를 개선해 성실 신고 편의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해외 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해 해외 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 안내 및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 공지해 안내했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 책자 및 국세상담센터와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 직원에게도 도움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 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한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명·직업·주소 등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못한 이들도, 과태료 부과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했지만 신고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정 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면 신고한 날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90% 과태료가 감경되고,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해도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외동포신문)

우즈벡 타슈켄트에 스타트업지원센터 준공 현지 기술 기반 창업 지원 역량 강화와 창업 생태계 활성화 거점 역할 기대

우리 정부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스타트업지원센터(U-ENTER)가 문을 연다. 센터는 우수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 창업지원 인력 역량 강화, 창업 네트워킹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창업생태계의 허브로 일컬어진다.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KOICA)은 6월 3일(현지시간) 타슈켄트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김희상 주우즈베키스탄 대사 ▲박순진 코이카 우즈베키스탄 사무소장 ▲아드함 이크라모프 우즈베키스탄 청년정책·체육부 장관 ▲다브론 바하보프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회장 ▲아드함 이크라모프 체육청소년정책체육부 장관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 후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우즈베키스탄 관계는 기술과 혁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단계로 진입할 때가 되었다"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지원한 스타트업지원센터(U-ENTER)에서 우즈베키스탄 청년들이 과학기술 및 혁신 교육을 바탕으로 혁신적 아이디어의 싹을 틔우고 창업이라는 과실을 맺기를 바라며, 이러한 한-우즈베키스탄 파트너십이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산업 다변화와 기술주도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300 제곱미터로 스타트업 보육실, 컨퍼런스홀, 코워킹 스페이스, 네트워킹, 교육실, 컨퍼런스홀 등의 공간으로 조성됐다. 여기에서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입주공간 제공부터 스타트업 대상 교육과 네트워킹 행사, 투자 자금 매칭 및 시장 진출 지원, 스타트업 멘토 및 컨설턴트 양성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1~2층에 위치한 스타트업 보육실은 입주자가 독립 사용하는 업무용 공간으로, 총 15곳이다. 2023년 하반기부터 선정 절차를 거쳐 입주하는 초기 스타트업 기업에는 교육, 취업과 창업 컨설팅 등의 성장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2층 대규모 컨퍼런스홀은 교육과 네트워킹 행사 등 다양한 참여 행사 등이 열릴 계획이다. 지하 1층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K-Lab 우즈베키스탄 협력 지원사업'을 통해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터 등의 디지털 제작장비를 구축해 우즈베키스탄 청년들이 시제품을 제작하고 사업화하도록 지원한다. 같은 층에는 스타트업 관계자들 간 소통하고 자유롭게 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도 준비됐다.

'K-Lab 우즈베키스탄 협력지원 사업'이란 개발도상국에 K-Lab(한국형 디지털 혁신 인프라) 설치 및 운영을 통해 현지 실정에 맞는 디지털 교육,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구현 등 디지털 역량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센터 건립은 코이카의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기술 기반 창업촉진센터 역량강화사업(2020~2024/550만 달러)'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센터 건축 외에도 스타트업 관련 법·제도 컨설팅, 온라인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스타트업 인적자원 초청연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6월 3일 열린 우즈벡 스타트업지원센터 준공식 단체사진 (사진 외교부)



6월 3일 열린 우즈벡 스타트업지원센터 준공식에서 인사하는 박진 외교부장관 (사진 외교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화된 중·고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혁신 기반 스타트업 육성과 투자를 통한 시장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시장의 빠른 변화에 비해 창업 환경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예비·초기 창업자에 편중된 스타트업 지원 ▲기술 기반 창업멘토 부족 ▲창업 지원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 ▲스타트업 관계자 간 거점 기관 부재 등이 걸림돌로 제기돼 왔다.

코이카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내 스타트업의 발굴과 양성을 넘어 기술 사업화와 투자 유치까지 아우르는 고도화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이카는 이번 사업은 우수한 스타트업 육성 역량을 가진 혁신 국가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향후 국내 스타트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에도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 개소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서울 종로구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 750만 재외동포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이 서울 종로구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에 문을 열었다.

재외동포청 준비를 총괄한 외교부 이도훈 제2차관은 정문헌 종로구청장, 국민대표, 재외동포청 관계자와 함께 본청이 출범한 6월 5일 통합민원실 개소식을 갖고 동포콜센터를 개통했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통합민원실과 연중 24시간 동포콜센터(02-6747-0404)와 함께 비대면 영사 민원24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750만 재외동포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재외동포청과 소통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도훈 차관은 개소식 기념사에서 "해외 재외공관의 영사서비스와 함께,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통합민원실과 동포콜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재외동포 대상 민원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외교부도 재외동포청과 함께 재외동포를 위한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재외동포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은 ▲기획조정관 ▲재외동포정책관 ▲교류협력관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등 3국·관, 1센터로 구성됐다.

(재외동포신문)

경기 적십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 원폭피해자 위한 '사랑의 제빵'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개소 30주년을 맞이한 적십자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와 함께 제빵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적십자 경기지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간 경기 안산지역 소재 서남봉사관에서 개소 30주년을 맞이하며 원폭피해자와 사할린동포 지원사업의 상징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와 제빵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제빵 봉사활동.(적십자 경기지사 제공)

만들어진 제빵은 사할린 교포들이 거주하는 안산 고향마을,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 등 총 473가구에 전달된다. 적십자는 1993년 6월10일 원폭 복지사업소를 개소해 30년간 일제강점기 당시 피해를 본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 건강상담 등 복지지원사업을 수행 중이다. 사할린 교포 영주귀국사업, 모국 방문사업 등 사할린 교포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수원=뉴스1)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 개소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서울 종로구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 750만 재외동포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이 서울 종로구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에 문을 열었다.

재외동포청 준비를 총괄한 외교부 이도훈 제2차관은 정문헌 종로구청장, 국민대표, 재외동포청 관계자와 함께 본청이 출범한 6월 5일 통합민원실 개소식을 갖고 동포콜센터를 개통했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통합민원실과 연중 24시간 동포콜센터(02-6747-0404)와 함께 비대면 영사 민원24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750만 재외동포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재외동포청과 소통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도훈 차관은 개소식 기념사에서 "해외 재외공관의 영사서비스와 함께,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통합민원실과 동포콜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재외동포 대상 민원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외교부도 재외동포청과 함께 재외동포를 위한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재외동포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은 ▲기획조정관 ▲재외동포정책관 ▲교류협력관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등 3국·관, 1센터로 구성됐다.

(재외동포신문)

경기 적십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 원폭피해자 위한 '사랑의 제빵'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개소 30주년을 맞이한 적십자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와 함께 제빵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적십자 경기지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간 경기 안산지역 소재 서남봉사관에서 개소 30주년을 맞이하며 원폭피해자와 사할린동포 지원사업의 상징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와 제빵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만들어진 제빵은 사할린 교포들이 거주하는 안산 고향마을,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 등 총 473가구에 전달된다. 적십자는 1993년 6월10일 원폭 복지사업소를 개소해 30년간 일제강점기 당시 피해를 본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 건강상담 등 복지지원사업을 수행 중이다. 사할린 교포 영주귀국사업, 모국 방문사업 등 사할린 교포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수원=뉴스1)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В ходе мероприятий акции командование воинских частей совместно со специалистами нар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испансера проходят инструкторско-методические занятия, доведение требований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правонарушения, связанные с незаконным оборотом наркотиков.

Так же, для командиров подразделений выступит представитель управления по контролю за оборотом наркотиков для доведения методик раннего выявления и распознавания признаков наркотического опьянения.

Помимо этого,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вопросы организации координации действий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по недопущению незаконного проникновения наркотических веществ в воинский коллектив.

В целях 100% охвата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и членов их семей по доброй традиции проводятся смотр-конкурсы в номинациях «Лучший рисунок», «Лучшее стихотворение», «Лучшая песня», по итогам которых лучшие работы не останутся без внимания и их авторы будут поощрены командиром воинской части.

Акция завершится подведением итогов, поощрением командиров подразделений воинской части, в которых наиболее качественно и эффективно организованы мероприятия и достигнуты положительные результаты в вопросах профилактики правонарушений, связанных с незаконным оборотом наркотиков.

사할린국립대, 학생 경시 대회 결과 발표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사할린 국립대학교 학생 진로지도 올림피아드가 학기 중에 진행되었다. 대학 보도부는 지난 몇 년 동안 7,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올림피아드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참가자 수가 전년도보다 700명 늘어나서 약 2,000명에 달했다. 여기서 105명의 수상자와 입상자가 나왔다. 기술, 자연과학, 언어 등 다양한 주제에서 총 22개의 올림피아드가 개최되었다.

사할린 국립대학교 올림피아드의 인기가 높아진 것은 최

근 몇 년 동안 대학이 진로 지도와 과학 대중화에 집중적으로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올해는 고등학생이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5학년부터 11학년까지의 어린이들이 다양한 과목에서 경쟁했다. 대학 입학 시 올림피아드 우승자와 준우승자는 입학 시험에서 4~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국비 지원 대학에 입학할 확률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올해는 스미르니흐에서 준우승자와 우승자가 참가하는 등 점점 더 많은 먼 지역에서도 참가하고 있다. 주최측은 쿰릴열도를 포함한 타지의 어린이들이 올림피아드에 더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내년에는 교육학 올림피아드, 심리학 올림피아드 등 몇 가지 새로운 분야가 열릴 예정이다.

Итоги олимпиады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подвели в СахГУ

Профориентационный проект «Олимпиада СахГУ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проходил в течение учебного года уже в седьмой раз. На протяжении прошедших лет в олимпиада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7 тысяч школьников,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университета.

В 2023 году число участников достигло почти 2 тысяч — на 700 человек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В том числе было отмечено 105 призеров и победителей. Всего прошло 22 олимпиады в различ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предметного цикла — техническом, естественно-научном, языковом и так далее.

Рост популярности олимпиад СахГУ связан с тем, что университет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едет интенсивную работу по профориентации и популяризации науки. В этом году по разным предметам состязались дети с 5 по 11 класс, хотя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и пока все же большинство. При поступлении в университет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еры олимпиады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о от 4 до 5 баллов к вступительным испытаниям и имеют больше шансов на бюджетное место.

Все чаще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отдаленные районы — так, в этом году есть призер и победитель из Смирных. Организаторы работают над тем, чтобы олимпиада привлекала больше ребят из самых отдаленных районов, в том числе с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В будущем году должно открыться также несколько новых направ-

лений — олимпиады по педагогике и по психологии.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리는 제34회 전 러시아 올림피아드의 날 등록 시작

제34회 전 러시아 올림피아드의 날 진행되는 스포츠행사 참가 등록이 시작되었다. 사할린 주 체육부 보도부에 따르면 이 행사는 6월 18일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 관광 단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전 10시에 "올림픽 마일" 릴레이가 하부 역에서 시작된다. 14세 이상이며 건강상 금기 사항이 없는 5인 팀(최소 한 명은 여성이어야 함)이 참가할 수 있다.

오르막은 각각 300~350미터의 5단계로 나뉘며 단지의 중간 역에서 끝난다.

오전 10시 30분에는 중앙 플랫폼에서 행사의 공식 개막식이 열리고, 오전 11시에는 "수직 올림피아드" 익스트림 레이스가 시작된다. 14세 이상의 선수들은 개인 종목 300m 오르막 코스 "아르메이카"에서 스스로의 기량을 증명해야 한다.

Стартовала регистрация на XXXIV Всероссийский олимпийский ден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Регистрация на спорти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рамках XXXIV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олимпийского дня открыта. Событие пройдет 18 июн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сообщила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10:00 на нижней станции стартует эстафета «Олимпийская миля». В ней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команды из пяти человек (в составе должна быть как минимум одна женщина), старше 14 лет и не имеющие медицинских противопоказаний.

Подъем будет разбит на пять этапов по 300-350 метров каждый и завершится на средней станции комплекса.

В 10:30 на средней площадке состоится официальное открытие мероприятия, а в 11:00 стартует экстремальный забег «Олимпийская Вертикаль». Участникам в возрасте 14 лет и старше предстоит проявить себя в личном зачете на дистанции 300 метров в гору по трассе «Армейк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 полугодие 2023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606 руб. 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